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의학직업전문성 교육현황

포천중문의과대학 외과학교실

정 철 운

= Abstract =

Current Situation of Medical Professionalism Education in Korean Medical Schools

Chul Woon Chung, MD

Department of Surgery, Pochon CHA University, Sungnam Korea

Purpose: As the importance of teaching professionalism has become more emphasized in medical education, Korean medical educators are trying to introduce and revise new learning materials concerning professionalis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ansition of curricula subjects related to medical professionalism in Korean medical schools.

Methods: A search for the learning subjects was done by reviewing the 'Korean Medical Education Guide' from 1998 to present. Subject titles relating to medical professionalism and the time allocation of these subjects in lectures and laboratories in the 41 Korean Medical Schools were identified. The annual increasing rate of related subjects, as well as some characteristic differences between medical schools were analyzed.

Results: There were 28 subjects with content on medical professionalism in 1998/99. There was a rapid increase in the introduction of professionalism to the curriculum annually. Although private medical schools outnumber the public system,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m in the number of established subjects. But schools with fewer students had more programs relating to professionalism. This may be seen as a reflection of the relatively newly established schools with fewer students being more ready to adopt curriculum reform than older, larger medical schools.

Conclusion: The results show that there has been a rapid growth in the number of subjects relating to medical professionalism in the curricula at Korean medical schools. This study focused mainly on analyzing the current subject constellation in the curricula. A further study on the specifics of curriculum content and its teaching method is required.

Key Words: Medical professionalism, Ethics, Curriculum reform

교신저자: 정철운, 포천중문의과대학 외과학교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51 분당차병원
Tel: 031)780-5250, Fax: 031)780-5259, E-mail: wehrwolf@cha.ac.kr

서 론

의과대학에서의 교육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바람직한 의사양성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의사양성이란 무엇인가? 이는 환자와 사회가 요구하는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환자와 사회가 바라는 좋은 의사의 모습은 의사가 가진 바람직한 자질 또는 의학전문직업성 (medical professionalism)을 통해 표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의과대학은 의학전문직업성을 갖추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해주어야 하는 데 현재 우리나라 의과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내용들이 과연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전문적인 의사를 양성하는데 충분한 것인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바람직한 의사양성에 대한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 의과대학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다. 미국 의학교육 학회지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Academic Medicine 에서만 보아도 1996년에서 1998년 사이에 무려 25편의 의학전문직업성에 대한 논문이 실렸다. 이밖에 임상학회지인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Annals of Internal Medicine 등에서도 의학전문직업성 개발에 관한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 (Wear & Bickel, 2000). 왜 이러한 의사의 태도와 가치에 대한 논쟁점들이 급격히 대두되고 있는 것인가?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해지면서 의료의 환경도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사회에서 의사에게 요구하는 전문성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특히, 진료와 관련하여 사회는 의사에게 단순히 질병치료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심리적 상태, 가족, 직업 등의 배경까지 파악하여 진료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우택, 2001). 인간의 질병은 “생물학적-심리학적-사회문화적 (Bio-Psycho-sociocultural)”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진료 상황에서 혼자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타 의료인과 협력하여 최종 판단을 하는 등의 협의개방적 능력도 요구된다. 즉, 복잡해진 사회와 질병은 의사로 하여금 다면의 의존적인 (multidimensional dependent)

의료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의료현장에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비판이나 문제점은 다양하며 이는 곧 바람직한 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술과 자질이 다양함을 시사하고 있다. 의학적 사실만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과과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사회와 동료와 마주 대하고 있는 환자와의 관계에서 지켜져야 하고 설득시킬 수 있으며 이해하여야 하는 행위, 능력, 당위성 등을 교과과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최근 우리나라의 의학교육에서도 관심의 하나로 등장되고 있다. 의학전문직업성을 갖춘 바람직한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은 어떠한지를 분석하기 위한 초반 작업으로 필요한 것은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의과대학에서 제공하는 의학전문직업성 교육은 어떠한 수준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우리나라 의과대학 의학전문직업성 (medical professionalism) 교육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에서 발행한 한국의과대학현황집 제3권 (1998~1999, 2000~2001, 2002~2003)을 조사하였다. 조사내용은 41개 의과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의학전문직업성 관련 교과목 강의와 실습 시간, 학점의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나아가서 연도별 의학전문직업성 교과목 수의 증가율, 의과대학 설립연도에 따른 차이, 대학별 학생정원에 따른 개설 과목, 국립, 사립의과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과목의 수 등을 분석하였다.

교과목 선정의 기준은 과목의 명칭에서 의학전문직업성 개념에 부응하는 교과목을 연구자가 선정하고 의학교육 전문가 2인에게 타당성을 확인받았다.

결 과

가. 의학전문직업성에 관련된 교과목

의학전문직업성 과목의 명칭을 살펴본 결과 1998~1999년도에는 의학윤리 또는 의료윤리로 대부분

Table I. The Professionalism Related Subjects. More Concrete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Introduced in Recent Curriculum

1998~1999		2000~2001		2002~2003	
Name of Subject	No.	Name of Subject	No.	Name of Subject	No.
1 Practice in social welfare	1	Society and doctor	4	Society and doctor	5
2 Physician and patients	1	Social ethics	2	Ethics in medical treatment	3
3 Medical science & society	1	Medical sociology	7	Managements in medical treatment	1
4 Special lecture in human and social sciences	1	Medical ethics	13	Medical sociology	1
5 Social ethics	2	Understanding medical field	1	Medical treatment and society	23
6 Medical ethics	3	Doctor and society	1	Medical ethics	13
7 Ethics and medical science	8	Doctor and patients	2	Social and medical problems in medical treatment	1
8 Ethics in medical treatment	10	Ethics for doctor	2	Understanding medical field	1
9 Management of medical treatment	1	Medical science and society	1	Doctor and society	1
10		Medical ethics	8	Doctor and patient	8
11		Special lecture in human & social science	1	Ethics for doctor	2
12		Doctor-patient relationship	5	Doctorology and ethics for doctor	1
13		Understanding patients	1	Medical science and society	1
14				Medical ethics	8
15				History of medical science and medical ethics	1
16				Special lecture in human and social science	1
17				Patient-doctor relationship	4
18				Patient, doctor and society	1
Total	28		48		76

의 대학이 개설하고 있었으며, 1개 의과대학에서 의학과 사회라는 명칭으로 개설하고 있었다. 2002~2001년도에는 의료와 사회, 환자-의사관계, 사회와 의사라는 명칭으로 과목이 개설되고 있는 것이 두드러진 현상이었다. 또한 2002~2003년도에는 의료의 사회윤리적 문제, 환자와 의사, 의사와 사회, 의학과 사회, 의료와 사회 등으로 과목의 명칭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연도별 과목의 명칭을 살펴보면 Table I 과 같다.

나. 의학전문직업성 교과목의 개설 현황

전국 41개 의과대학에서의 의학전문직업성 관련 교과목의 총 과목수를 보면 1998/99년도에 28개 과목, 2000/2001년도에 48개 과목, 2002-2003년도에 76개 과목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Fig. 1).

한편, 연도별로 의학전문직업성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의 수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8~1999년도에는 23개의 의과대학에서, 2000~2001년도에는 27개 의과대학에서 그리고 2002~2003년도에는 37개 의과대학에서 과목을 개설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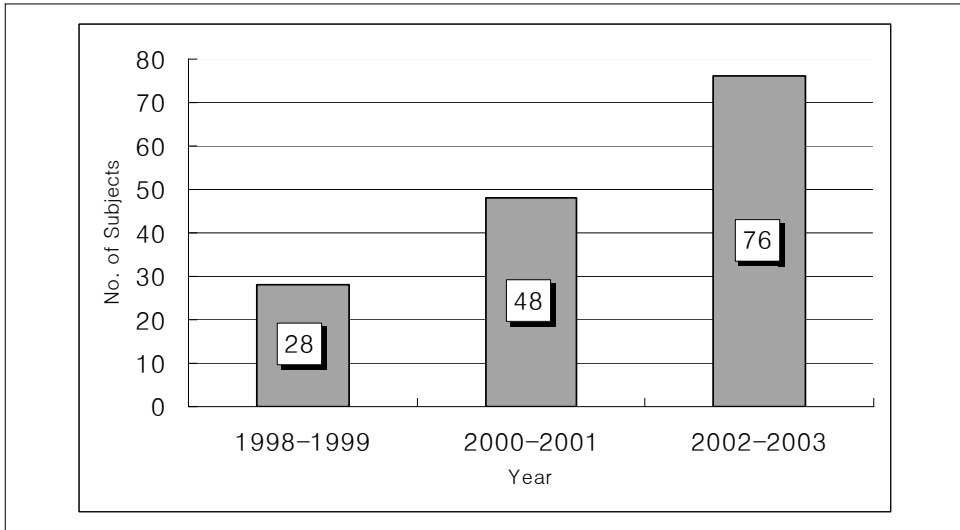


Fig. 1. The growing number of the professionalism-related curriculum subj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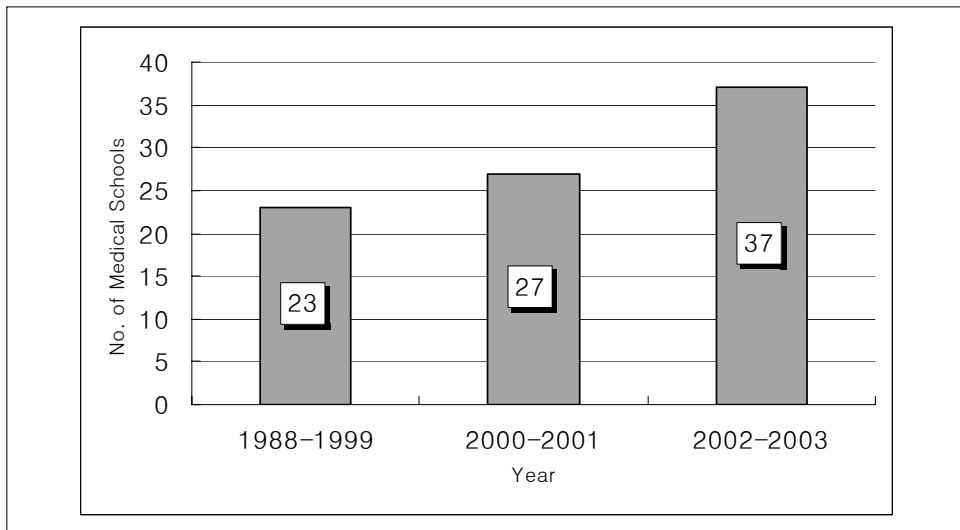


Fig. 2. Numbers of medical schools that open the professionalism-related curricula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의과대학의 90%가 의학전문직업성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 2).

다. 강의, 실습, 학점 현황

관련과목에 해당하는 강의와 실습시간을 살펴 본 결과, 현재까지는 강의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학점은 1~2학점 정도로 낮은 편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8~1999년도에는 평균적으로 강의시간이 11.72시간, 실습 2.42시간, 학점은 0.72학점으로 나타났으며, 2000~2001학년도에는 평균 강의시간이 18.54시간, 실습 3.39시간, 학점은 1.16학점이었다. 그리고 2002~2003학년도 평균 강의시간은 24.28시간, 실습은 4.85시간, 학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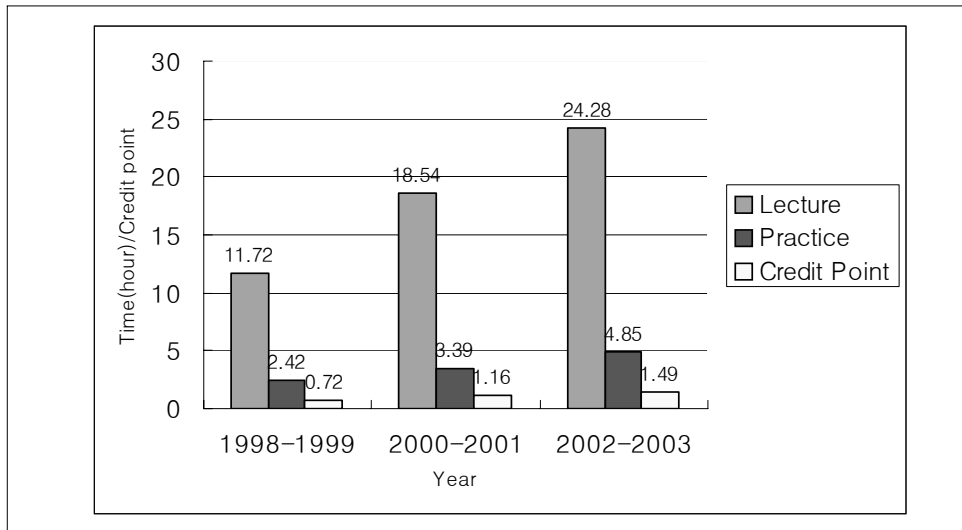


Fig. 3. The time of lecture, practice and the credi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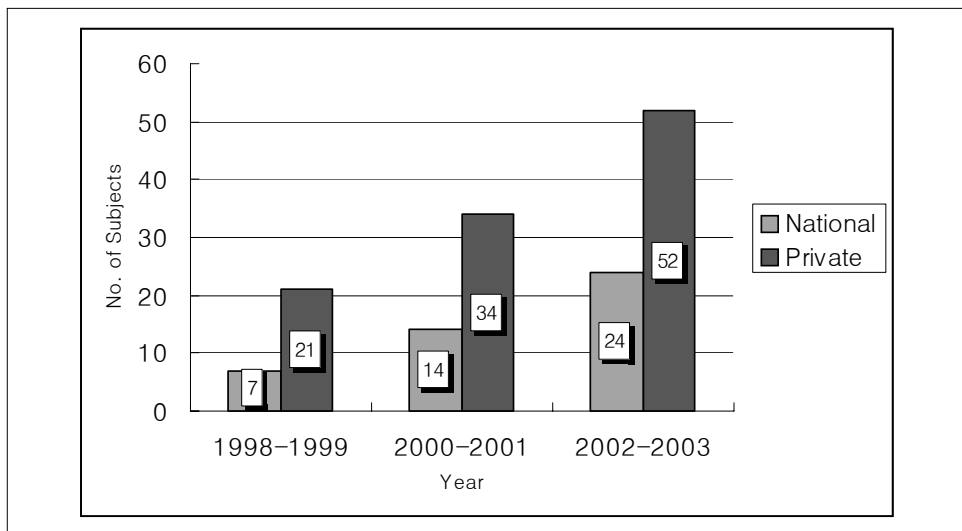


Fig. 4. The numbers of professionalism related curricula in national and private medical schools

1.49학점으로 나타났다 (Fig. 3).

라. 국사립의과대학별 개설 과목 수 현황

국립, 사립별 의학전문직업성 과목 개설 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Fig. 4). 1998~1999학년도에는 국립의과대학에서 7개 과목, 사립의과대학에서 21개 과목을 개설하였으며, 2000~

2001학년도에는 국립의과대학에서 14개 과목을 사립의과대학에서는 34개의 과목을 개설되었고, 2002~2003학년도에는 국립의과대학에서 24개의 과목을 사립의과대학에서는 52개의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절대적인 과목 수를 대학의 수, 즉 사립 의과대학이 3배정도 많은 것을 고려하면, 국·사립별 개설 과목수는 차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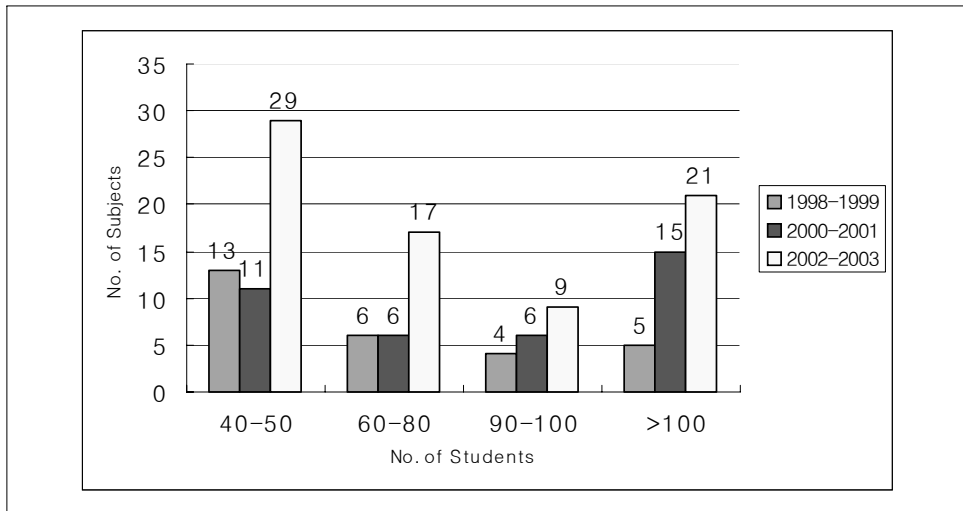


Fig. 5. Small medical schools are more easily changing in curriculum renovation than big medical schoo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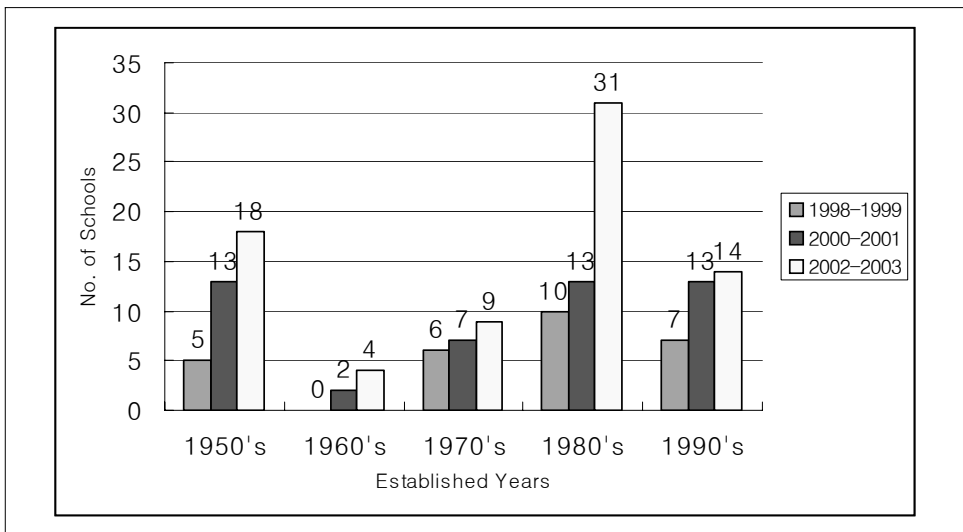


Fig. 6. Newly established medical schools are more active in the introduction of professionalism related curricula than old traditional medical schools.

없다고 할 수 있다.

마. 대학 정원수에 따른 교과목 개설 현황

학생 정원수의 차이에서는 정원수가 적은 의과대학이 의학전문직업성 관련 교육을 더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수가 적은 대학의 경우 비

교적 신설의과대학으로서 교육과정의 개선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Fig. 5).

바. 대학 설립연도에 따른 교과목 개설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대 이전에 설립된 대학은 9개, 60년대에 3개, 70년대 7개, 80년대에 12개, 90

년대에 10개 의과대학이 설립되었다. 의과대학 설립 연도에 따라 의학전문직업성 교과목을 어느 정도 개설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는 Fig. 6과 같다. 주지할만한 사항으로는 80년대에 설립된 의과대학에서 급속히 많은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 찰

Kasar & Clark (2000)는 의사의 다면적인 의존성이 의학전문직업적 행동을 구축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 의학전문직업성을 갖추기 위한 의사의 자질을 크게 8가지로 보았다. 이는 임상사고능력 (clinical reasoning), 감정이입 (empathy), 언어적 그리고 서면적 의사소통 (verbal and written communication), 조직성 (organization), 관리 과정 (supervisory process), 협력 (cooperation), 진취성 (initiative), 전문적 표현 (professional presentation)이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적 표현은 의상을 통해 표출되는 의사의 전문적인 이미지를 의미한다. 이 8가지의 자질 중에서 특히 의사소통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환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크게 언어적 (verbal), 비언어적 (non verbal) 의사소통과 서면적 (written)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지며, 의사는 환자의 진료 또는 환자와의 관계 형성 시 구두적 표현, 제스처, 서면적 정보 등을 통해 접근하게 되므로 의사소통은 의사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며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모든 전문직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은 그들만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의사들은 일반적인 의사소통 시에도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의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어떤 유형의 의사소통을 사용하든지, 의사는 환자, 환자의 가족, 타 전문직종인, 일반 대중과 매일 의사소통하게 되므로 의과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타인이 이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습득 방법에 대한 교육내용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의사소통 기술 (communication skill) 이라든지 상담학 (counseling), 심리학, 수사학 (rhetoric), 더 나아가서는 사회학이나 문학적 문제접근 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

요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의학전문직업성의 개념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 윤리에 바탕을 둔 바람직한 의사의 성품과 행동 (이성낙, 2003), 일반직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지식 및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독특한 직업조직, 직업윤리, 직업문화를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해 봉사 지향적인 직업으로 일반직업들에 비해 고도의 직업적 자율성을 사회적으로 보장받는 직업 (박종연, 1993), 의사의 직무에 기반 하는 것 (Southon & Braithwaite, 1998), 사고와 감각과 행동습관의 지속적인 자기반성의 과정 (Wear & Catellani, 2000), 개인의 전문성을 가지고 의료와 관련된 의사의 모든 바람직한 자질을 행하는 것 (Miettinen & Flegel, 2003)이라는 다양한 정의와 의견들이 있다.

이와 같은 의학전문직업성 개념과 다면적 의존성이라는 직업적 속성에 비추어 살펴보면, 의과대학에서 의사로서의 전문직업의식을 가르쳐 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의학교육과정에서 의학전문직업성을 가르쳐주는 과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의학전문직업성 교육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도별로 의학전문직업성 관련 과목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과목의 명칭도 점점 다양화되고 있다. 교과목의 명칭은 특히 의학전문직업성에서 강조하고 있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 의사와 사회 등의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추상적 및 원론적인 성격의 과목명 (가령 심리학, 윤리학 등)을 그대로 커리큘럼에 반영하였으나 근자에는 구체적인 직업활동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통해서 보다 원론적인 문제에 접근하려고 하는 귀납적 접근 방식이 서서히 나타나는 것을 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의학교육과정의 최근 변화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의사양성을 목표로 하는 것임을 비추어볼 때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이 분야의 강화는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국 41개 의과대학 중 2002~2003년도에 들어서 37개 의과대학에서 의학전문직업성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

라고 할 수 있으며, 나머지 4개 의과대학에서도 관련 교과목이 개설될 것이 기대된다.

우리나라 의과대학에서 많이 제공되고 있는 또 하나의 의학전문직업성 관련 교과목 분야는 의료윤리교육이다. 이는 의사에 대한 인성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국내외의 현 추세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의료를 행할 때 의사에게는 반드시 사회적, 법적인 문제 외에 윤리적인 측면이 빠질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김옥주(2002)에 의하면, World Federation of Medical Education (WFME)에서 기초 의학교육과정에 반드시 의료윤리 교육과정을 포함시킬 것을 공표한 것 외에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의과대학 의학과 인정평가>의 기준으로 의학과 교육과정 중 의료윤리 등 의학과 관련된 인성교육 과목을 최소한 1개 이상 개설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의료윤리 교육은 통합교육의 일부로 시행되거나 독립적인 과목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도 전체 교육과정과의 유기적 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의료윤리가 실제의 의료현장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인식하기 쉽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문적인 윤리교육이 아닌 이론과 실체가 연계되고 타 교과목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간학문적인 (interdisciplinary) 교과목 개설의 증대와 이론과 실체를 겸비한 경험중심 학습내용으로 교과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의학전문직업성 교과목들이 실제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가르쳐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번의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의학전문직업성에 관한 구체적인 교육과정의 내용과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나아가 외국 의과대학의 의학전문직업성 교육현황과의 비교 분석에 대한 연구, 또는 바람직한 의사양성을 위한 의학전문직업성 교육의 교육과정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 등을 통해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의학전문직업 교육이 추후에 할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참 고 문 헌

- 김 선, 허예라(2003). 21세기 의학전문직업 교육 -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의학교육*, 15(3), 171-186.
- 김옥주(2002). 미국 의과대학의 의료윤리교육 현황. *한국의학교육*, 14(2), 195-202.
- 박종연(1992). *한국 의사의 전문직업성 추이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종연(1993). 한국 의사의 전문직업성 추이 -의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태도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27(겨울호), 219-243.
- 이성낙(2003). *21세기 의학 프로페셔널리즘: 역사와 전망*. 제14차 의학교육합동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의과대학학장협의회. 83-87.
- 이 철(2003). *전공의 교육수련(GME)과정에서의 프로페셔널리즘 교육*. 제 14차 의학교육합동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의과대학학장협의회. 127-131.
- 조병희(1994). 개업의사들의 전문직업성과 직업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28(여름호), 37-63.
- 최현립(1992). "환자에게 설명을 하여 줍시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편, *·의료, 좀 더 알아봅시다·*, pp.47-51.
- 홍창기(2003). *의료환경 선진화 토론회의 기초연설* (이성낙, 2000) 재인용. 의사의 프로페셔널리즘과 의학교육. 제14차 의학교육합동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의과대학학장협의회. 69.
-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1998). *의과대학교육현황*. 제 10집(1998-1999).
-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2000). *의과대학교육현황*. 제 11집(2000-2001).
-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2001). *의과대학교육현황*. 제 12집(2002-2003).
- Kasar J & Clark NE(2000). *Developing Professional Behaviors*. Slack Inc. 3-8, 34, 119-125, 161.
- Miettinen O, Flegel K(2003a). Elementary Concepts of Medicine: X. Being a Good Doctor: Professionalism. *Journal of Evaluation in Clinical Practice*, 9(3), 341-343.
- Miettinen O, Flegel K(2003b). Professionalism in

- Medicine. *Journal of Evaluation in Clinical Practice*, 9(3), 353-356.
- Southon G & Braithwaite J(1998). The End of Professionalism? *Social Science Medicine*, 46(1), 23-28.
- Wear D & Bickel J(2000). *Educating for Professionalism*. University of Iowa Press. p.xi.
- Wear D & Castellani B(2000). The Development of Professionalism: Curriculum Matters. *Academic Medicine*, 75(6), 602-611.